우리 복지관은 지금 | 17. 양평군장애인복지관

좋아하는 그림이 '나의 일'이 되기까지



올해 6월 개최된 경기도 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서 그림 부문 금상을 수상한 콘텐츠 작가 김아람 씨와 동료들의 기념촬영 모습.

양평군장애인복지관은 '바람개비와 함께 보통의 일상을 이루다'라는 슬로건 아래 장애인과 복지관, 마을, 이웃이 함께하며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서 역량을 키워 직업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복지관은 2020년부터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주관하는 '장애인 웹툰 아카데미 조성 및 운영 사업'에 선정돼 청년들의 웹툰 작가 입문 프로그램인 '그리다, 툰'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참여한 인원은 약 400명이다. 참여자들은 그림을 배우고 디지털 창작 역량을 쌓으며, 자신이 좋아하는 그림 활동으로 일을 이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다.

프로그램은 기초 미술 교육부터 디지털 드로잉, 클립스튜디오 등 관련 전문 프로그램 활용법까지 폭넓게 진행된다. 현직 웹툰 작가가 참여자의 특성과 숙련도를 고려해, 각자의 강점을 살려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그 결과 참여자들의 디지털 드로잉 2급 자격증 취득, 이모티콘 승인·판매, 외부 공모전 수상, 지역 전시회 개최 등의 성과가 이어졌으며, 지난해에는 장애인 웹툰 아카데미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다음 과제는 참여자들의 창작 역량을 지역 사회 내 실제 일자리로 연결하는 것이었다. 양평 지역 내에는 장애인이 웹툰 작가로서 디지털 창작 역량을 살려 활동할 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복지관은 지난해부터 경기도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 사업인 '우리의 시선으로 만드는 콘텐츠-콘텐츠 작가편'을 추진하고, 참여자들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해 지역 사회에 필요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도왔다.

지난해 5명이 첫발을 내디뎠고, 올해는 기존 참여자 3명과 신규 참여자 2명이 합류해 총 5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장애인들을 위한 보완 대체 의사소통 체계(ACC) 안내판과 메뉴판, 장애 인식 개선 동화 삽화, 지역 홍보물 등을 직접 제작한다.

콘텐츠 작가로 활동 중인 김아람 씨 역시 그림을 좋아해 해당 사업에 참여했지만, 처음부터 그림을 직업으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니다. 자신 역량에 확신이 부족했지만, 작가 활동을 통해 새로운 기법을 배우며 스스로의 가능성을 발견해 나갔다.

이후 김 씨는 복지관 공모전 금상, 대전유성구장애인복지관 공모전 우수상을 받았으며, 복지관 리플릿과 행사 포스터 일러스트 작업에도 직접 참여했다. 올해는 경기도 장애인기능경기대회 그림 부문 금상을 수상해, 오는 9월 17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전국 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 경기도 대표로 출전한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김 씨는 스스로 주제를 제안하고 작업 방향을 구상하는 등 활동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양평군장애인복지관은 앞으로도 한 사람의 가능성이 배움에 머물지 않고, 실제 직무와 직업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기회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임효진
양평군장애인복지관 대리

남산에서 묻는 마음의 안부 | ⑧ 마음의 가을맞이

배움을 위한 쉼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9월. 계절이 바뀌는 순간에는 몸과 마음의 리듬도 함께 달라진다. 뜨거운 햇살 아래 밖으로 향하던 시선은 조금씩 안으로 돌아오고, 분주했던 여름의 속도를 늦추며 자신을 돌아볼 여유도 생긴다.

남산 충정사의 9월 '남산-숨, 쉼'은 이러한 계절의 변화를 '마음의 쉼'이라는 주제로 바라본다. 공부하고 배우기 좋은 계절이라고 해서 우리의 마음까지 끊임없이 무언가로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오히려 가득 찬 생각과 감정 사이에 작은 여백을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 잠시 멈추어 호흡을 살피고 몸의 감각에 귀 기울이며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남산-숨, 쉼'이 제안하는 가을맞이의 방식이다.

선불교에는 평상심시도(平常心是道), 곧 '평상한 마음이 바로 도'라는 말이 있다. 〈무문관〉에서 조주가 남전 선사에게 도가 무엇인지를 묻자 남전은 특별한 경지를 가리키지 않고 평상심을 이야기했다. 수행이 일상과 동떨어진 특별한 순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차를 마시고 걷고 숨 쉬며 사람을 만나는 평범한 순간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데서 시작된다는 뜻으로도 읽을 수 있다. 쉼 역시 일상을 벗어나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 마음을 고르게 하는 시간이 된다.

계절 변화 속 '마음의 쉼' 주제 선명상

쉼, 내면으로 주의 모으는 적극적 돌봄

더 깊은 이해와 통찰을 위한 준비 과정

우리는 흔히 쉼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선명상에서 쉼은 단순한 멈춤과는 조금 다르다. 바깥으로 흩어졌던 주의를 자신의 호흡과 몸, 마음으로 되돌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적극적인 돌봄의 시간이다. 생각을 억지로 비우거나 감정을 없애려 하기보다 그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과정을 조용히 알아차리는 동안 마음에는 조금씩 여유가 생긴다.

특히 가을은 새로운 배움이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책을 읽고, 무언가를 공부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다시 세우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배움이 온전히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 역시 필요하다. 쉼 없는 배움은 어느 순간 부담이 되지만, 쉼이 함께하는 배움은 자신을 이해하고 삶을 성장시키는 힘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명상은 더 깊이 보고 듣고 이해하기 위해 마음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9월의 남산에서 잠시 숨을 고른다. 여름 동안 쌓인 피로를 내려놓고 선선한 바람을 느끼며 지금의 나를 살펴본다.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를 묻기 전에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차리는 것이다. 계절이 자연스럽게 여름을 놓고 가을을 맞이하듯, 우리 역시 붙잡고 있던 생각과 감정에 잠시 여백을 내어줄 수 있다. 가을은 채우기 좋은 계절이지만, 잘 채우기 위해 먼저 마음에 자리를 내어주는 계절이기도 하다.

9월 '남산-숨, 쉼'이 건네는 쉼은 잠시 현실에서 벗어나는 시간이 아니다. 평범한 하루 속에서 자신의 호흡과 마음을 다시 만나고, 더 잘 배우고 관계 맺고 살아가기 위해 자신의 중심으로 돌아오는 시간이다. 어쩌면 남전 선사의 말처럼, 우리가 찾던 수행의 길은 특별한 곳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평범한 하루 안에 이미 놓여 있는지도 모른다.



덕운 스님
서울 충정사 주지

스마트폰에 담은 사찰 꽃문 | ㉜ 사바를 건너는 법

수종사 가는 길은 남편과 함께였다. 초보 운전자라면 앞바퀴가 들려 머리 뒤로 넘어갈 것 같은 공포감을 느낄 만한 급경사 길을 올랐다. 그런 다음 또 가파른 계단을 걸어 오르는데 남편이 앞에서 손을 잡아준다. 늘그막에 무슨 이득 볼 일도 없으면서 절 찾아다니는 모습이 안쓰러웠던 모양이다. 지금껏 살면서 이런 적이 있었던가? 기억을 짜내야 할 정도로 무뚝뚝한 경상도 사람이다. 부처님의 가피인가 싶다.

운길산 수종사.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두물머리가 한눈에 들어오는 곳이다. 조선의 학자 서거정이 "동방 사찰 가운데 으뜸의 풍광"이라 상찬했다는 경치를 일상으로 누리는 절이다. 다성으로 일컬어지는 초의 스님, 다산 정약용, 추사 김정희 같은 분들이 이 절에서 차를 마시며 시를 얻었다. 그래서 수종사에서는 한강을 조망하는 자리에 집을 짓고 삼정헌이라는 당호를 붙였다.

수종사 삼정헌 쪽마루에 모녀로 보이는 두 사람이 아득히 한강을 바라보고 있다. 이 모녀의 시간도 저 강물처럼 흘러왔을 것이다. 앞에서 끌고 뒤에서 따르며. 이제 모녀의 시간은 '장강의 뒤 물결이 앞 물결을 밀어내듯' 서로의 자리를 바꾸어 갈 것이다. 우리의 한생은 그렇게 흐른다. 손을 내밀어야 할 때가 있고 잡아야 할 때가 있다. 그 타이밍을 놓치지만 않는다면, 사바일 수밖에 없는 이 세상도, 하나부터 열까지 다 괴롭기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손영자 작가


수종사 삼정헌.

지장보살 영옥함



지장보살 좌대에 영옥으로 봉안

사찰 납골의 혁신

• 유골이 보석화 되어 깨끗하고 변질이 없습니다.
• 납골의 곰팡이, 변질, 벌레 발생 근본적 해결함.
• 친숙한 사리 형상으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모시는 환경과 장소에 구속 받지 않고 경제적
• 관리가 어려워진 산소 정리 후 개장 유골도 가능
• 변질되어 악취 발생 및 물이 찬 유골도 가능함
• 고인별로 영옥의 색상이 다르게 발현됨
• 22년간 기술을 발전시켜 고인 고유의 아름다운
• 색상을 발현시키는 기술이 검증된 원조 회사
• 생성 소요 시간 60분 소요
• 납골을 모셔오고 생성 후 모셔 드리는 서비스 있음
• 영옥의 색상과 량은 고인 별로 다르게 발현됩니다.

깨끗한 오리지널 유골보석

직통상담 010-5235-2677
홈페이지 www.holytec.com

깨끗한 오리지널 유골보석
영옥(靈玉) 사리

SINCE 2002
오리지널 유골보석 전문업체
주식회사 본 향

NAVER 영옥사리 검색